시료 1개 검사에만 3시간…검사 횟수·품목 늘어 '비상'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방사능 검사 동행 취재

목포·여수 참돔·꽃게 등 검사…감마핵종분석기로 실시간 수치 측정
오토샘플러 자동검사해도 물적·인력부족에 지자체별 10주 기다려야
매주 1회 정기검사 체제로 전환…충분한 검사 위해 인프라 확대 절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검사 횟수와 품목이 늘었지만 충분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대가 절실합니다."

29일 오전 10시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 약품화학과 직원들은 분주했다.

전 날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뢰를 받은 시료들의 전(前)처리작업을 서둘러야 시간 내에 방사능 검사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 직원들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도맡고 있으나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24일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됨에 따라 전남도가 수산물 방사능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대응을 강화해 연구원들은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태다.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비정기적으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왔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매주 1회 검사하는 정기검사로 체제를 전환했다.

연간 90건이었던 정기검사 횟수를 2배 늘려 총 270건 실시하기로 했고, 시료수거도 기존 월 1회 10건이었지만 대폭 늘려 주 1회 6건(월 4회 24건)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횟수를 늘려도 검사 1건당 3시간이 걸리는 탓에 일주일에 한 차례 진행되는 검사로는 전남 2개 지자체에서 유통되는 6건의 수산물만을 검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결국 물적·인적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남도가 마련한 강화 대응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주 수산물 검사를 한 목포시, 여수시는 남은 20개 시·군의 검사가 끝날 때까지 10주를 기다려야 다음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날 검사한 품목은 전어, 참돔, 꽃게 등의 수산물이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소속 연구원, 공무직 직원 등 3명은 전날 미리 냉동해 둔 전어를 냉동고에서 꺼내 연구원 3층 시료 전(前)처리 실험실로 옮겼다.

일렬로 선 직원들은 각각 역할을 맡아 전어 손질, 분쇄기 작동, 시료를 통에 옮겨담는 작업을 했다. 5kg의 전어 중 먹을 수 있는 부위만 손질해 실험이 가능한 1kg의 살만 분리하는데 30분이 걸렸다. 이 작업이 완료돼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원에는 민간에서 의뢰한 방사능 검사도 진행해야 하는 탓에 검사가 밀리기도 일쑤다.

이날도 완도에서 민간의뢰로 올라온 전복 검사까지 진행되는 탓에 전처리 시간이 늘었다.

결국 1시간이 지나서야 수산물 시료들은 방사능 검사를 위해 연구원 2층 감마핵종분석기(요오드, 세슘 등 방사능 물질 검출 장비)가 있는 기기분석실로 이동할 수 있었다.

방사능 검사는 전처리가 끝난 시료통이 감마핵종분석기에 투입되기만 하면 컴퓨터로 결과가 전송된다. 다만 시료통 1개를 검사하는데 1만 초(약 2시간 40여분)가 소요된다.

연구원은 "감마핵종분석기 하단에 있는 액체질소가 게르마늄 봉을 영하 265도까지 냉각시켜 방사선 저항을 없애게 되면 게르마늄 봉을 통해 방사능 검사결과가 도출되고 분석돼 컴퓨터로 전송된다"고 방사능 검사 원리를 설명했다.

연구원이 조작한 컴퓨터 화면에는 감마핵종분석기에 시료통이 들어간 뒤부터 실시간으로 방사능 수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작성되고 있었다.

연구원은 오토샘플러(시료통을 미리 넣어두면 24시간 자동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치)와 감마핵종분석기를 각각 2대씩 보유하고 있지만 2대의 오토샘플러에 54개의 시료통이 모두 투입된 적은 없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전처리 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모든 장비를 가동할 만한 시료를 만들수 없다는 것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 전에는 검사 건수가 많지 않아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지만 최근 검사 횟수가 급격히 늘면서 한계를 느껴 충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29일 완도에서 의뢰한 전복의 방사능 검사를 하기 위해 껍질을 벗겨내는 전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부작용 설명 안한 병원·의사 손배 책임 있다"

시술중 뇌 손상 입고 2년 후 숨져
광주지법, 2000만원 배상 판결

내시경 시술 전 동의서만을 받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과 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A씨의 유족들이 광주시 동구의 모 병원과 소속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유족들은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급성당남염으로 타병원에서 당남절제술을 받았고 수술부위에서 담즙이 새 해당 병원으로 이송돼 시술을 받던 중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약 2년 후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의약품 과다투약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해 A씨가 사망했다며 병원과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유족에게 '역행성취담관 내시경 시술 동의서',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동의서만으로는 관련된 부작용 등을 정확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참여연대, '벌떼입찰' 호반건설 총수 일가 고발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줘"

참여연대는 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 총수 일가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호반건설의 행위는 단순한 부당 입찰이나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넘어 그 이익을 회장의 자녀들에게 귀속시키고 회사에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0~2015년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업무·인력·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 보증 등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이런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장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KIA 팬들이 경찰에 고소장 낸 이유는

"구단 정상화 촉구 시위 위한 모금액 사용처 불분명"

6월 모금 주도자 수사 의뢰

프로야구 KIA타이거즈 팬들이 구단 정상화 촉구 시위용 모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KIA타이거즈 일부 팬들이 모금액 횡령과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A씨가 올해 6월 19일 KIA타이거즈를 정상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기아타이거즈 정상화를 위한 트럭 시위'를 진행 하자는 게시글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700만원을 웃도는 돈을 팬들로부터 모았다"고 밝혔다.

당시 KIA타이거즈의 비정상적인 선수 운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던 상황에서 팬들이 다수 모금에 참여했다. A씨가 글을 올린 6월 19일 KIA타이거즈는 승률 0.466으로 리그 6위에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A씨가 트럭 시위를 하고 화환을 설치하는 등 일부 비용은 집행했으나 애초 약속했던 전광판 광고나 현수막 게시, 부채 제작 등은 하지 않아 모금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트럭시위에서는 '1,2군 선수 차별 ○○○아웃'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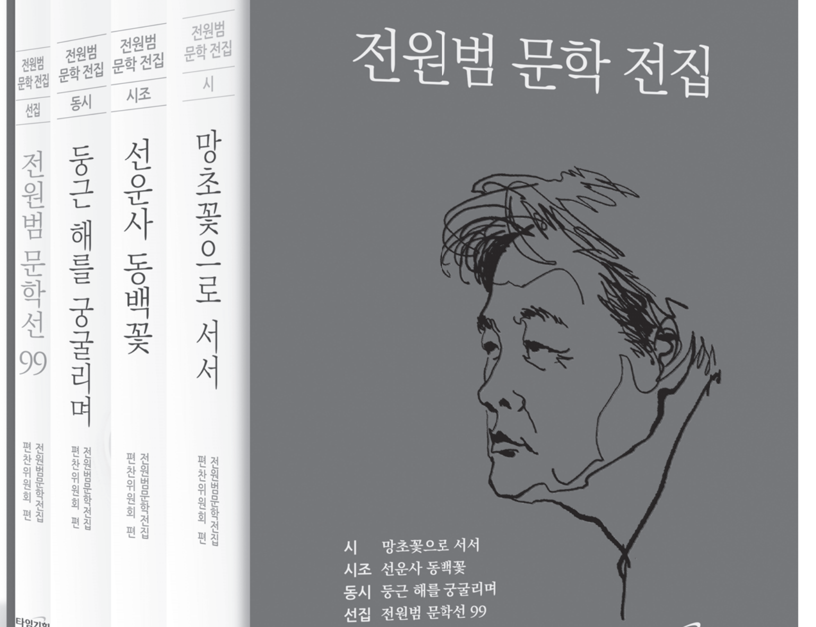
팬들은 소장을 접수한 배경과 관련, A씨가 팬들의 요구로 공개한 내역서와 입금 내역이 맞지 않는 점, 시위용 부채 제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장스탭에게 압수 당했다' 등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트럭시위를 진행했지만,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트럭 시위 견적서에는 7월 3일로 기재돼 시점이 어긋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궁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돼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창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